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1월 26일 (제103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당신이 있기에

뒤뜰에 떨어진 낙엽 모아
불쏘시개하는 당신
방 데워 온 가족 따스한 잠자리 일구운 당신
삼거리 이정표
말없이 찬 서리 비바람 눈보라에
눈물도 얼어붙은 당신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지 않소이까!
나의 영원한 당신, 예수여!

朋友 이초석 목사

목회 35년,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야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다. 또한 항상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다면, 다윗에게 37명의 용사가 있었다면,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면, 나에게서는 예수중심교단의

성도들과 땅끝예수전도단 회원들이 있다. 그들이 나의 조력자요 지지자로 내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해외집회를 가노라면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나를 위해 금식기도를 해주신다. 어떤 권사님은 바지 속 깊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만 원권을 건네며 비행기 안에서 맛있는 것 사먹으란다. 그분은 비행기 안에서도 기차처럼 사먹을 수 있다고 생

각하신 거다.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감사하다. 어떤 장로는 해외에 다녀오면 내가 보고 싶어서 눈이 젖물렀다고 한다. 이러하니 내가 예수의 행복한 노예가 됨을 어찌 찬양하지 않겠는가.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내 부모가, 내 형제들이 우리 성도들보다 나를 대우할까? 나

를 사랑할까?
나의 바램이 있다면 이런 나의 성도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건강하고, 잘 살고, 만사형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서로를 칭찬하며 자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하며 끝까지 잘 감시다. 할렐루야!

2020년 1월

봉우컬럼

자신감

‘둘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아는 길도 물어가라.’
만사 조심하며 짚고 넘어가라는 선조들의 잠언이다.
그러나 너무 신중해서, 너무 조심하느라 일의 진척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집회로 기억된다. 영어 통역을 담당한 집사가 내 말을 통역해야

하는데 한참씩 머뭇거린다. 그날 그의 통역에 신경 쓰느라 나는 설교 내내 답답함을 느꼈다. 집회가 끝난 뒤에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묻자 그의 말인즉 신중을 기하느라 그랬다는 것이다.
매사 이런 식이면 어찌 될까?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그는 매우 논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런 면 때문에 그가 유명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일도 생겼다. 칸트는 어느 여인과 오랜 기간 사귀고 있었다. 여인은 이제 칸트가 청혼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자 용기를

내어 먼저 청혼을 했다. 여인의 청혼을 받은 칸트의 대답은 이랬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칸트는 집에 돌아와 결혼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결혼에 대한 자료를 들여다보며 결혼의 실패와 장단점에 대해 조사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결혼하기로. 그러나 칸트는 그 여인에게 청혼할 수 없었다. 그 여인은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나치게 조심하는 자들이여! 혹시 신중하다는 허울 아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자신감의 결여로 후퇴한 것은 아닌지.

매번 돈키호테식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다. 매사 무리수를 두라는 것도 아니다. 만사 준비가 철저하면 자신감을 갖게 되고, 때가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결단하고 승부수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한다.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삶을 살지 말자.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늘 준비하며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기회가 왔을 때 쟁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자신감은 실력에서 나오는 것으로, 준비한 자의 몫이니가.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갈4:19~20)

너가 절박한 심정을 아느냐

‘절박하다’는 뜻을 아십니까? 어떤 일이 나 때가 가까이 닥쳐서 몹시 급한 상태를 말합니다. 절박함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은 아마도 마태복음 14장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을 본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로 걷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자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물 위를 잘 걷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 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를 마구 질러댔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마14:30). 이런 심정이 절박함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조직적인 정신력이 앞선다

그들의 기도는 상달되는 힘이 컸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 안 해주면 저 죽습니다.’라는 심정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3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변심한 바로가 군사를 보내어 바로 추격해옵니다. 말을 타고 창을 들고 달려오는 애굽군대가 저 멀리 보입니다. 설상가상, 앞에는 홍해로 가로 막혀있었습니다. 이제 다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딱할 정도인지라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출 14:15)라고 하시고는 홍해를 가르셨고, 뒤따르던 애굽 군대를 수몰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춥고 더울 때도, 물이 없을 때도 모세의 절박한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 조용히 잘 살았으면 좋았으련만 사자가 못 낚는 아들 하나 낳고는 엉덩이에 뿔이 나서 본처인 사라를 무시하다가 본가에서 쫓겨납니다. 두 모자가 광야에서 방황할 때 아들이 목이 마르고 배고프다고 하자 하갈은 방성대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죽는 것을 차마 못 보겠습니다. 살려주세요”(창21:16). 그 기도에 하나님이 놀라 “하갈아 무슨 일이냐”(창21:17) 하시고는 하나님이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장래의 약속과 함께(창21:14~18)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집을 떠나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며 쌓아올린 재물은 물론 가족들이 강을 건너갈 때 야곱은 정말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 대신 축복을 받은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너무도 절박한지라 환도뼈가 부러져도 그 사자에게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하나님의 사자가 결국 야곱을 축복하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주었습니다(창32:22~30).

한나는 브닌나의 열시에

절박한 심정으로 아들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단았던 태의 문을 열고 사무엘을 주셨고(삼상 1),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아하수에로 왕을 감동시켜 풍전등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 부림절을 맞게 했습니다(에4), 르호보암의 손자로 유대의 6대 왕인 아사 왕의 이야기도 해볼까요?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여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100만의 구스 군대가 쳐들어 왔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겨우 30만 정도인데 말입니다.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박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대하14:11). 그의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구스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히스기야는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는 야유를 퍼붓고 능욕의 서신까지 보낼 때에

편지를 펴놓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사 밤새 적군 18만5천 명을 치셨고, 야유하던 왕도 치셨습니다(사37:33~34). 그런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도 심히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여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사38:3).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년 육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

매를 내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땅에 비가 내렸음은 너무 당연합니다. 딸을 고치려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께 간구했고(마15:22), 소경 바디매오도 눈을 뜨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질러 예수님으로 하여금 돌아보게 했습니다(마20:30). 다윗도 시편 86편 7절에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라고 고백했고, 육체를 가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일에 대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5:7).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를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

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눅18:6~7).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는 자녀를 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없으면 빌려서라도 해주고, 못 해주면 당신들이 통곡하는 것이 부모이거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가 절박하게 구하는 자녀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올림픽공원에서 예배드릴 때 예배 처소가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광야를 지나는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행사가 취소되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절박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저를 위경에서 건져주셨기에 35년을 아무 탈 없이 왔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얻지 못하는 것은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고로 응답은 소망의 열도에 정비례하는 법,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보세요. 왜 응답이 안 오겠습니까?

세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배수진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더는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 쥐도 고양이로 무는 용기와 힘이 나는 법이니까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우리 큰아들이 중학교 시절, 목욕탕에 데리고 갔을 때 성공비결을 묻기에 탕속에서 처박고 머리를 눌러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여기던 아들이 계속 누르니까 살려고 사력을 다해 저를 밀어냅니다. 불같이 따지는 아들에게 제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지금처럼 모든 일에 사력을 다해라.’ 그럼요, 헝그리(hungry) 정신이 있으면 뭐든 합니다. 예전 권투선수들이 이 시합에 지면 가족 전체가 굶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력을 다한 것입니다. 사력을 다하면 뭐든 됩니다. 사자가 토끼를 잡아도 사력을 다하는 것처럼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사력을 다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영혼육의 성공비결, 바로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됨을 알고 뭐든 대충하지 말고 사력을 다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 할렐루야!



믿음, 하나님과의 최상의 조화

기독교는 웬지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마음이 좁고 답답하고 뭔가 사람이 구차해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이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정한 범위 속에서 우리와 조화를 이루려고 하신다. 주님이 주신 믿음은 하늘 아버지 집의 약속이다.

반면 불신자는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들은 죄를 짓고도 평안하고, 하나님을 몰라도 숨 쉬며 살게 하시고, 밤과 낮을 주시고, 태양과 비를 주시고, 믿음이 없어도 땅에서 나는 지하자원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살아간다. 악인도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면 능히 물질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행통은 이 땅에서 뿐이요 영원하지 못하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스스로 저주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멸망이 있다. 울고 몸부림쳐도 해방될 길이 없고 자유를 얻을 길이 없는 무섭고 떨리는 최후의 심판 날을 결국 맞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려 하신 것이다. 천사나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다. 시간이나 물질, 인간들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앙을 주신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주신 것이다. 원래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자격이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생긴 것이다.

성경에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는 말씀은 신앙의 수준이 어린이와 같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어린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듯,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여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믿음을 결코 초월하지 않는다.

믿음으로만이 기독교가 시작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 여기 있나이다.’

비록 죄인이지만 이는 인간과 하나님의 대화가 된다고 하는 굉장한 조화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부를 때에 대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자신의 진로를 상의한다는 것은 굉장한 조화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내어 보여라.

신기류 목사

:: 신앙논객 ::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요즘은 스마트폰의 발달과 동영상 콘텐츠의 대중화로 바야흐로 ‘1인 방송국’ 시대다. 채널을 개설하고 구독자를 일정 수준 이상 모으면 동영상 조회 수에 따라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너도나도 크리에이터(동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를 꿈꾼다. 작년 말 초등학교생들의 장래 희망을 묻는 설문조사에도 운동선수와 교사 외에 3위를 차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런 풍조를 반영한 것일까. 얼마 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희귀병을 소재로 해서 채널을 개설하고 동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던 사람이 있다. 틱 장애, 일명 ‘뚜렛 증후군’(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단순하며 반복적인 동작이나 소리를 내는 현상)을 앓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증상이 나타나는 중에도 곳곳이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았고, 단기간에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다. 심지어 그와 비슷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영상이 삶에 희망을 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잇따랐다. 그런데 얼마 뒤, 그가 실제로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며 동영상을 찍기 위해 연기를 했다는

소위 ‘가짜 조작’ 논란이 제기되었다.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 영상 속 그의 모습이 어색하고 뭔가 부자연스러웠던 것이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그는 자신의 병력과 처방전 등으로 대중들에게 해명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털미가 잡히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당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감만 키운 것이다.

교회 안팎에도 노력질하는 이리, 양 폐를 삼키는 샅꾼과 같은 소위 가짜 크리스천들이 많다. 거짓과 속임이 만연한 이 시대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진짜 크리스천은 어디에 있는가. 혹시 나도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마치 방송을 하듯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고 거룩한 척 자신을 속이며 연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2020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진짜’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연기하는 짝퉁이 아닌,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신혁주 전도사

성공하려면 부지런하라

건반의 대가인 루빈스타인이 비행기 안에서 병어리 피아노로 열심히 연습하는 것을 본 제자들이 말한다.

“선생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때 루빈스타인은 말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알고, 이들을 안 하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안 하면 청중이 안다네!”

‘부지런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일을 하는 데에 열성적이며 꾸준하다’이다. 즉 무슨 일을 하든지 열성을 갖고 꾸준히 하는 자가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꾸준함이 재능을 이긴다. 토끼와 거북이의 교훈이 그것이다. 달인은 꾸준히 반복함으로 만들어진다. 우리 목사님을 보라. 한 명을 놓고도 그 뜨거운 열정과 꾸준함의 결과가 이 민족과 열방을 이끌고 계시지 않은가! 목사님은 말씀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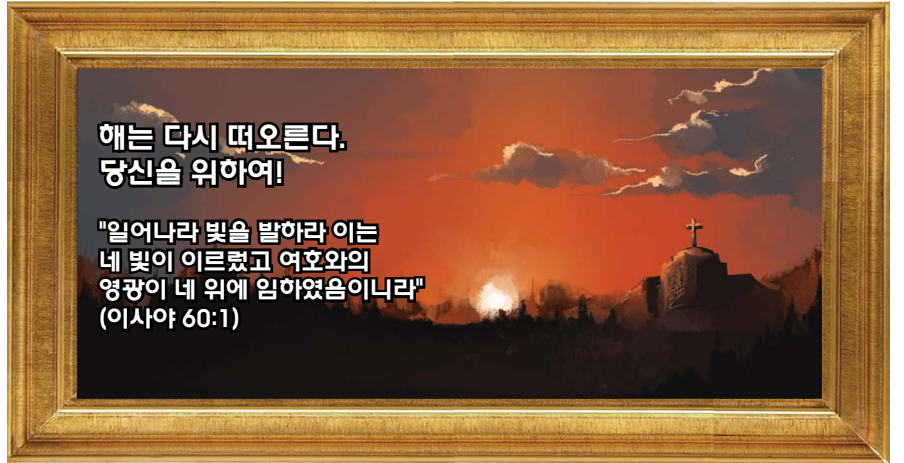
다. “나는 목회 시작할 때의 흥분이 지금도 식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널 때나(수3:1),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나(수6:12,15), 아이성을 칠 때나(수8:10)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부지런을 떨었다고 기록한다. 심지어 도움을 요청하는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도 ‘밤새도록 올라가서’ 적들을 물리쳤다고 한다(수10:9).

부요하길 원하는가(잠10:4)? 다스리는 자가 되길 원하는가(잠12:24)? 경영하는 것이 풍성하길 원하는가(잠21:5)? 목회의 성공을 원하는가(잠27:23)? 부지런하면 된다. 주님을 섬김도 열심을 품고 부지런할 것이다(롬12:11).

2020년, 매사 부지런하고, 나를 돌아보시며 형통케하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자(욥8:5).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생명의 말씀 ::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때 공원 관리인이 “여보시오, 당신은 누구시오! 어디서 왔기에 해가 지는데 돌아갈 줄 모르고 있소?”라고 하자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거요.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번민하고 있는 중이요.”라고 대답했다.

2020년 예수중심교단 슬로건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자!’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정해진 시나리오다. 우리도 세상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대학 정문에 이런 글이 새겨진 돌비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법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야심에 찬 청년이 노 교수를 찾아와 자신은 앞으로 법학을 공부하겠노라고 자신에 찬 말로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러자 노교수가

“그래, 그렇게 공부를 한 후 무엇을 하겠는가?”, “전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 명성을 얻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쁜 규수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년을 맞이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자 청년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생각한 끝에 입을 열어 말했다. “그 다음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죽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년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그날 밤 청년은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히9:27).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번민할 필요가 없다. 왜냐! 답이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주를 위해 살자.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참 잘 살았구나!’ 기뻐하며 춤을 출 것이다.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우리가 받은 축복

사탄송배자였다 회심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존 라미네즈’의 간증입니다. 9살 때부터 주술사 훈련을 받고, 20대 초반에 최고 서열의 사탄송배자가 된 그는 25년간 사탄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람들에게 마법을 걸고, 군대귀신들을 조종하고, 동네를 저주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가 저주한 자들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무신론자들을 죽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으며, ‘영의 세계가 어디냐?’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더욱 파괴하기 쉬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탄의 앞잡이였던 그에게 몇 가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한 여인을 죽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돈을 받고 죽음을 부르는 저주를 걸었는데, 한 달 동안 아무리 주술을 걸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사

탄에게 이유를 묻자 사탄은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고, 결국 주술을 포기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자신의 동네에 선교단이 찾아와 예배를 드린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선교단을 날려버리기 위해 그가 예배당에 갔을 때, 고작 18~20세 남짓한 젊은 청년들이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들 주변에 불의 벽이 둘러쳐져있어서 아무리 침투하려 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들을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영의 세계에서 자신의 저주가 자연세계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다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무기력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자신을 만나

달라’는 기도를 했고, 사단은 배신한 그의 영혼을 끌어내어 지옥 불구덩이가운데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불가운데 십자가가 나타났고, 자신을 덮치던 사단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나는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나는 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음성을 들었고, 육체로 돌아온 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주술도구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영의 세계는 실존하며, 예수 앞에 사단은 무력하니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회복하자!”고요.

그의 간증을 들으며,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고,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에 힘입어 기도하는 지금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인명 집사

:: From Internet ::

어느 재미교포가 쓴 글

한국에 와보니 웬만한 동네는 모두 고층 아파트가 되었다. 가정집뿐 아니라 심지어 공중화장실에도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설치되었고, 주차 티켓을 뽑는 그런 촌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고 우아하게 자동인식으로 주차장에 들어간다. 모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되고, 집에 앉아서 햄버거를 시켜 먹고, 어느 집에 가도 요즘은 비밀번호나 카드 하나로 모든 문을 열고 들어간다.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방문하는 집마다 자동소파가 있고, 집안의 전등은 LED이며 전등, 가스, 심지어 콘센트도 요즘은 리모컨으로 켜고 끈다. 미국에서 나름 부자 동네에 살다 온 나도 집마다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럭셔리함과 고급스러운 제품들에 놀라고 부럽다.

집집마다 수십 개의 스포츠 채널을 포함 끝없는 채널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심지어는 버스 정류장에서도 자동으로 초고속 wifi가 잡힌다. 역마다, 정류장마다 몇 분 후에 내가 기다리는 차가 오는 정보도 뜨니 옛날처럼 도로를 응시하며 버스 놓칠까 염려하는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다.

나도 우아하게 비데를 사용하면서 편리한 지하철, 고속열차 등을 이용하면서 싸디싼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몇 걸음만 걸으면 먹을 수 있는 수없이 다양한 음식과 디저트를 즐기면서, 자동소파에 누듯이 앉아수많은 TV 채널을 돌리면서,며칠만 있으면 이 고급스런 라이프스타일에서 떠나야한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한다. 전세금이 얼마나 비싼지, 정치는 얼마나 헛짓을 하는지, 아이들 교육시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아우성들이다. 차 한 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

로 없고, 아이들 스포츠나 과외 안 시키는 사람이 드물다. 같은 가격이면서 우리 집보다 방은 두 배 많고, 연이자도 2%대인 모기지를 가진 이곳에서 전세라는 훌륭한 시스템을 통해 매달 이자를 안 내고 살 수도 있는 이곳 사람들이 오늘도 모기지로 매달 3~4천 불을 내며 사는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연봉이 나보다 반이나 적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비싼 걸 먹고, 더 편리하고 더 고급스런 제품이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보험은 열 배나 싸고, 치료비도 열 배 싸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같은 10불짜리 밥을 먹어도 세금, 팁이 없어서 늘 25% 할인받는 느낌인 이곳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삶이 지옥이라 느끼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

50대가 되면 쫓겨나야 하는 현실,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말을 많이 듣지만 실제로 내 주변에 해고당한 사람은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많은데...

냉장고를 2, 3개 가지고 고기를 종종 뜯고, 회를 먹고, 좋은 차를 몰고, 편하고 고급스런 집에 살면서도 가난과 위기를 노랠라하게 된 내 조국.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과 평안이 필요함을 느낀다. 언제쯤 되면 우리는 진짜 가난한 북쪽의 우리 동포를 돌아다보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진짜 부자가 될까? 혹 진짜 부자이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으로 가난하게 느끼고, 더 부자 되기에 힘쓰고 있지는 않은지 한편 염려하는 마음도 든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 어다”(잠23:4).

대한민국은 초고속으로 압축 성장한 나라다. 아마도 기네스북에 올라야 할 나라일 거다. 세계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이

민을 가려는 자들이 줄을 선다. 자신은 아니더라도 자식은 미국에 보낸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 거의 다 그렇다. 자식을 이중국적자로 만든다. 무엇이 불안한지 위장전입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국토도 최선진국이다. 산에는 나무가 너무 많아 개간을 해야 할 지경이다. 위성 사진을 보면 온통 푸르다. 그리고 넓게 거미줄 같이 뻗은 고속도로. 다목적댐으로 물은 항상 넘실댄다. 홍수와 가뭄은 이제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더 기가 막히는 사연이 있다. 한민족은 5천 년을 배고프게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쌀을 저장할 곳이 없단다. 어디 쌀 뿐이라. 각종 먹거리가 산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똥보가 넘쳐나고 당뇨와 혈압 환자가 줄을 잇는다.

세상은 이렇게 풍요로운데 왜 우리는 바쁘고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가? 좁은 땅에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부딪히며 살아간다. 개인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상대를 꺼리게 된다. 그래서 이웃을 멀리하고 경계한다. 그러나 진짜 불안한 이유는 이것이다. 북쪽에 야만인들이 산다. 그들은 배가 찢어지도록 고프면서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바로 핵폭탄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항할 수단이 전혀 없다. 오직 있는 것은 한미동맹인데 요즘은 그것마저 흔들린다. 그래서 오늘날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것이다. 나라가 흔들리는데 좋은 집, 좋은 교통, 좋은 의료가 무슨 소용인가? 그래서 우리는 잘 살면서도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불만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떠나고 싶다. 떠나자니 조국(祖國)이요, 있자 하니 망국(亡國)이라.

그러므로 부디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자. 안보 없는 경제성장은 상상누각에 불과하니까.

오해

사랑하는 연인에게 그 둘만 있으면 애정 전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를 방해하는 갈등 요소가 삶속 곳곳에 존재하기에 서로 간 관계를 지키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 하나님과 나만 있다면 신앙생활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작정하고 방해하는 마귀, 악한 영들이 있다.

목사님의 설교 때도 들지만, 살면서 만난 여러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다.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었는데, 요즘에는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건강의, 물질의,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고.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한다. 받은 맞고, 받은 틀리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하는 거라고. 빛이 약해지면 어둠이 스멀스멀 스며드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여 악한 영들이 틈을 탄 거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축복해줄까 하시는 분이 라고 말한다.

물론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부모가 훈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막대기가 올 때도 있다. 그러한 막대기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울타리처럼 막는 역할을 한다. 단지 그 선을 넘었을 땐 막대기가 회초리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뿌린 죄악의 씨가 결과로 나타나는 것뿐이다. 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세상 이치에 따라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주신 축복에 감사가 없어도 속상한 일인데 주시지 않은 고통을 주셨다 오해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잠언 19:3).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